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2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21:1-8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14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49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유일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하는지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 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출애굽기 1:15-22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 봉 헌(offering) 5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401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 전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식량공급에 차질이 생겨 빈곤과 기아의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시도록
- 미국 대법원의 낙태법 판례 폐지 이후 주 정부와 의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처음 헌신했던 마음을 늘 지키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 모든 성도님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및 빈맥증)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말씀묵상> 출애굽기 1:15-21

15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16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피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18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19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21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1.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명령에 대해 어떻게 했으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15-17절)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신문에 거짓으로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18-20절) 나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심에 근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우주만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심은 하루아침에 형성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온전히 알아갈 때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쌓여갈 때, 어느 날 그는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 10:28)”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1500년 전에 히브리산파인 십브라와 부아는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자신의 몸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고,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어린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경외함을 받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보전되었고 그들의 집은 왕성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히브리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을 통해 가정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더이상 하나님 외에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